

# 한, 잇단 권력형 비리 의혹 ‘당혹’

‘김옥희 사건’ 이어 국방부 납품 비리  
‘비리당’ 이미지 점철 우려·탄식

한나라당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의혹에 당혹해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의 ‘공천장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유한열 당 상임고문이 연루된 국방부 납품 비리 의혹 사건이 터지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당 이미지가 ‘비리’로 점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탄식이 나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 수사가 청와대 행정규 정무수석의 의뢰로 이뤄진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맹 수석 측은 10일 “유 고문이 지난 1월 정책제안을 할 게 있으니 만나달라고 수차례 요청,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워 한 차례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고문이 이 자리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제안했고, 나는 ‘사적으로 처리하면 큰 일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공 최고위원회도 통상적인 민원 차원에서 부탁을 받았지만 국방부의 설명이 타당해 더이상 거론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단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번 사건을 정치권 주변 인사들에 의한 실패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며 파문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사기꾼들이 권력에 접근해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전개 과정에서 청와대 맹 수석이나 당의 공 최고위원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점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유 고문 외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특보와 당 중앙선대위 관계자 등도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곤혹스러워 했다.

또 검찰 추가 조사에서 메가톤급 부정 단초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나 한나라당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10일 전 산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여대의 돈

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유진산 신민당 총재의 아들로 16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 고문은 지난 1월말 광주외 전사업체인 D통신이 국방부 통합방 구축 사업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며 동료 정당인, 브로커들과 함께 6억원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도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옥희씨의 ‘30억 수수’ 사건과 관련, 10일 김씨에게 30억3천만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서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DJ “현 정부 추락은 10년 성과 무시한 때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급락 원인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며 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TV ‘일요일전대’에 출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지난 10년간 잘한 일이 많았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유신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

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이 대북문제나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보수진영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분배에 치우쳤으며 ‘좌파’라고 규정하는데 대해 “(국민의 정부 시절) 분배를 더 많이 못한 것이 국민에게 가장 미안하다. 빈부 양극화로

가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을 부족한 점으로 지적한다”며 현 정권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다 망한 기업을 살려 놓았지 않았나”며 “어째서 이것이 사회주의이고 반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60년간 대통령 중심제에 익숙해졌다”며 “정·부통령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한 사람이 보수적이면 다른 사람은 개혁적인 사람으로, 한 사람이 동쪽 출신이면 다른 사람은 서쪽에서 나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법안 발의는 외면 의정비만 올렸다

이은재 의원 지방의회 조사...광주·전남 기초의원 조례 발의 최하위

지방의원들의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남도의회와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의원들의 조례 발의 실적에 극히 조저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안군의회와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의정비는 대폭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의원 738명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435건으로 1인 평균 0.59건에 그쳤고 기초의원 2천850명도 1천982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0.7건에 불과했다.

발의안 조례 건수는 12건으로 의원 1인당 0.24건을 발의했다. 이는 16개 광역의회 중 3번째로 적은 수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광주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26건으로 의원 1인당 1.47건을 발의했다. 이는 16개 광역의회 중 인천광역시의회 3.06건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수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남은 의원 1인당 0.73건, 광주는 0.57건을 각각 발의했다. 이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8위와 13위의 기록이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신안군의회는 올 의정비를 42%, 영암군은 9% 각각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광역의원들의 1인 평균 의정비는 5천284만원으로 전년

보다 13% 올랐고, 기초의원들은 평균 3천766만원으로 36%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의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주시(재정자립도 11.1%)의 경우 올 75%나 의정비를 인상했다.

반면, 광주 동구와 예천군, 부산 진구, 대구 남구 등 기초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밖에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가 1인 평균 7천252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광주시가 4천23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230개 기초의회에서 구의회의 경우 광주 동구(2천778만원)가 최저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정몽준최고 호남 챙기기

오늘 광주·전남 방문 현안 청취...신지애와 리운딩도



정몽준(사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1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민심을 수렴하는 등 호남 챙기기에 나선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한나라당 광주·전남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누락되거나 제검토되고 있는 광주 문화복합단지 조성, 가전로봇 육성산업 등 ‘2009 광주·전남 국비지원 요청 사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당의 지지 기반이 취약한 만큼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여수세계박람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호남권 발전을 이끌 대형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또 12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이어 지난 4일 영국 버크셔셔 남데일리 골프장에서 열린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최연소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은 신지애 선수와 함께 촬영 다이너스티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의 이번 방문은 한나라당이 진행중인 전국 민생 정책 투어의 일환이다.

한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공성진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8월 17일 서울시 지방직 시험대비, 광주/전남 수험생 편의를 위한

서울시 지방직 시험장 차량접수

선착순접수! 왕복 2만원! (마감:8월 15일) 상해보험가입, 시험장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압도적인 1위

한빛 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부구청앞 234-0234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써든 크리스찬  
CU 한의대  
국내수업 가능  
인터넷 화상강의실

www.scukorea.com  
입학설명회  
매일 오후3시/4시  
문의전화  
010-6834-6253

입학대상  
양방의사,한의사  
자연의학 NMD  
의사자격증 특강  
캐나다 / 미국  
클리닉 개원가능

소방 방재청은 인력이 부족한 맞교대 격무부서에 올해안에 2,228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한다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강좌직종: 행정무세원찰공정호전지무목측산

하반기 시험

합격 회원 모집

9월 1일(주·야간반 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222-4560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송은영님 평균 96.7점] 합격률1위!!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9월 1일

19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합격을 위한 1차 전집승부 "절대합격반" 수강생 모집

공인중개사 전문 www.landkor.com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구)백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새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시험 10월 26일

문제풀이특강

총정리 및 실전문제특강

국비무료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콤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